

루돌프 슈타이너 제1괴테아눔의 인지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throposophic Characteristics of Rudolf Steiner's the First Goetheanum

박 윤 준*
Park Yun-Jun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anthroposophic characteristics shown in the first Goetheanum. Rudolf Steiner promoted anthroposophy base on the critique of modern times. His philosophy has developed in various areas such as medical science, agriculture, education, and art. In particular, his thinking was well expressed in the first Goetheanum which was built for Anthroposophical Society.

The anthroposophic architectural theory is defined here as application of cosmology, metamorphology and geometry.

Steiner defined geometry as a unconscious awareness inscribed in skeletal system of human body as humans have evolved in the process of cosmological development. As a result, Steiner's architecture was able to create metamorphological spaces with harmonizing geometric and organic factors. In respect of decoration, the shapes of plants applied to the decoration still kept individuality because of being made manually, thus perfect symmetrical architecture was impossible. Moreover, the first Goetheanum placed an emphasis on formative dynamics. This was to wake an individual's self-conscienceless up, by enabling him to experience with all the senses without reasoning from the precedent.

키워드 : 인지학, 제1괴테아눔, 우주론, 변형론, 기하학

Keywords : Anthroposophy, the first Goetheanum, Cosmology, Metamorphology, Geometry

I. 서론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 건축은 일반적으로 표현주의, 혹은 아르누보 건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슈타이너의 건축은 그가 근대사회의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새롭게 주창한 인지학(人智

學, Anthroposophy)¹⁾이라는 독특한 사상에 기초한 건축 이론에 의해 설계된 것이다. 따라서 슈타이너의 건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용적으로는 인지학적 건축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슈타이너의 대표작인 제1괴테아눔(the 1st Goetheanum, 1913-1920)을 대상으로 인지학이 어떻게 건축물에 실현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우선 인지학적 건축론을 우주론, 변형론, 기하학으로 한정하였다. 2장에서는 이들 각각의 이론에 관해 개괄하고 제1괴테아눔이 건축되기까지의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제1괴테아눔에 대한 분석을 축(軸) 및 배치, 평면계획, 기둥계획, 내부공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인지학 건축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1. 제1괴테아눔 외관

1) 인지학(人智學)이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로 사람을 뜻하는 'anthropos'와 지혜를 뜻하는 'sophia'로 이루어져 있다. 정신과학(Spiritual Science)이라 불리는 인지학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우주적 정신을 과학적인 탐구방법에 의해 인식하려는 학문체계이다. 이는 인간을 포함한 세계 전체에 대한 우주론적 해석이다.

* 정희원,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건축학박사

II. 인지학적 건축론과 제1피테아눔의 형성 배경

1) 인지학적 건축론²⁾

슈타이너는 인지학적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건축이론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건물에 드러나는 인지학적 특징을 그 형태와 의미에 따라 우주론, 변형론, 기하학으로 한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우주론

슈타이너는 건축이 진정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단지 근대적인 기능이나 미적 충족을 넘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자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혼과 정신은 우주의 위계 안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지학적 건축은 우주적 관련아래에서 인간의 정신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슈타이너는 건축을 끝없이 천체의 운행과 관련시키고 있으며, 건물의 배치방법과 상징물 및 실내장식을 통해 공간을 신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건축이 실제 우주적인 사건들이 연출되는 또 하나의 장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2) 변형론

슈타이너는 피테의 변형이론으로부터 변형론적 건축론을 형성하였다.

피테의 자연과학은 관찰을 통해 대상을 비교하는 형태학(Morphology)이라고 할 수 있다. 피테에 의하면 끝없는 변화를 지속하는 자연에 대한 탐구와 바른 인식은 시간적인 사건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하고 따라서 형태를 다루는 것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직접 드러내는 변형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련의 친근한 형태들을 통한 변화를 의미하며 수축과 팽창이라는 생명의 리듬을 표현하는 것이다.

슈타이너는 변형론을 적용하여 건축의 각 구성요소에서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형상들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건축을 살아있는 실체로서 표현하고 세계에 관한 변형론적 의식을 사용자에게 일깨우고자 한 것이다

슈타이너는 제1피테아눔에서 일곱 쌍의 기둥에 새겨진 식물 형상의 점진적인 변화, 기둥의 크기와 간격의 조절 등을 통해 변형론을 적용하고 있다.

(3) 기하학

슈타이너는 기하학 도형이 인간 자체에 무의식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즉, 기하학은 의식체계 속에서도 아닌 인체의 골격계(骨格系)에 각인된 지식이라고 주장한다.

슈타이너에 있어 기하학은 동일성을 담보하는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인체에 이미 기하학을 할 수 있게 하는 근원적인 경험이 내재되

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에서도 기하학적인 도형들은 실제 건축에서 직접 드러나게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계획된 건축은 인간의 잠재의식에 내재된 우주적인 교감을 일깨운다고 한다. 이로부터 슈타이너는 건물의 평면과 단면 계획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기하학의 원리들을 적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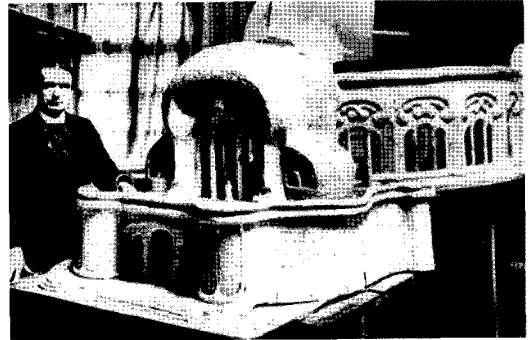


그림 2. 슈타이너와 제1피테아눔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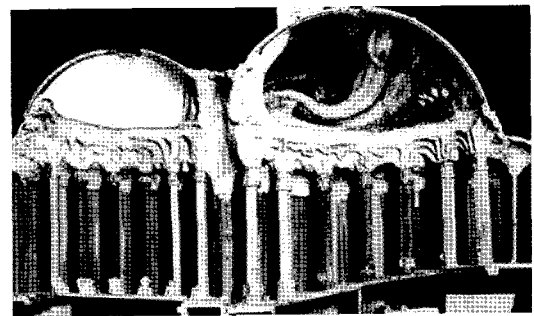


그림 3. 제1피테아눔 모형 내부

2) 제1피테아눔의 형성배경

인지학자들이 슈타이너의 사상에 따라서 그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제1피테아눔에 이르러 집약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제1피테아눔의 조형형식은 그보다 앞서 독일에서 실현된 4개의 인지학 건축물에 의해 점진적으로 발전하였다.

그 4개의 건축물은 먼저 최초의 인지학 건축이라고 인정되는 뮌헨 집회장(The Munich Congress Hall, 1907)으로부터 말쉬의 모델하우스(The Malsch Model House, 1908-1909), 슈트트가르트 하우스(Stuttgart House, 1911), 그리고 인지학 공동체를 위한 극장시설과 부속건축물로 이루어진 뮌헨 요하네스극장 계획안(The Munich Project-Johannes Building, 1911-1912)이 그것이다.³⁾

그러나 인지학 회원들의 열정은 제1차 세계대전의 암운이 드리워짐과 함께 불운한 결과를 가져왔다. 전쟁준비를 하고 있던 독일 당국은 그들과 다른 사상을 지닌 이들의 계획을 승인해주지 않았다. 결국 요하네스 건물은 계획안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얼마 후 슈타이너는 중립국이던 스위스에 다시금 인지학 건축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3) 이들 4개의 건축에 관해서는 상세한 필자 논문 참조.

2) 인지학적 건축론에 관한 설명은 필자의 다른 논문, 「루돌프 슈타이너의 초기 건축에 나타난 인지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0권 10호, 2004.에서 상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기로 한다.

독일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던 때 치과의사이던 헤른 그로스하인츠(Herrn Groscheintz)박사는 슈타이너를 위해 인지학 건축커뮤니티를 구성할 부지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1913년에는 새로운 부지환경에 따라 새로운 건물이 설계되었다. 그리고 1913년 9월 20일 마침내 스위스 도르나흐 언덕에 제1피테아눔의 초석이 놓이게 된다.⁴⁾ 이 건물을 짓는 데에는 인지학회의 회원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이루어 졌다. 공사는 빠르게 진척되어 1914년 4월 1 일에는 상량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서도 중립국이던 스위스 영토에 세워졌기에 비록 공사기간은 지연되었지만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1920년 9월에 이르러 제1피테아눔이 개관되었다. 그리고 제1피테아눔과 함께 그 주변에는 부지를 제공한 그로스하인츠의 주택인 돌백하우스(답답한 길모퉁이 집이라는 뜻)를 비롯한 부속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1922년 마지막 날(New Year's Eve) 반대자들의 방화로 인해 제1피테아눔은 전소되고 만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기초부분과 스테인드그라스 몇 조각을 제외한 건물 전체가 잿더미로 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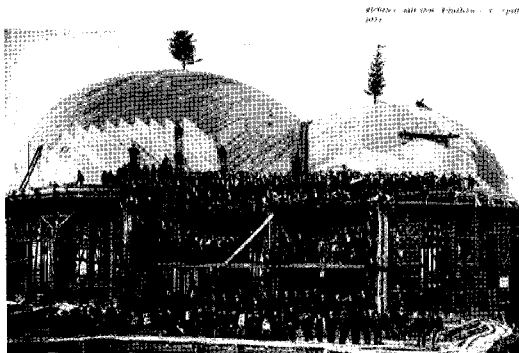


그림 4. 1914년 제1피테아눔 상량식



그림 5. 방화로 인해 폐허로 변한 제1피테아눔

III. 제1피테아눔의 인지학적 특성

슈타이너 인지학 건축의 정수인 제1피테아눔은 배치계획으로부터 실내장식에 이르기까지 인지학의 세계관을

4) 슈타이너가 인지학자들의 공동체를 건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도르나흐에 처음 방문한 것은 1912년 10월 2일 이었다.

일관되게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축(軸)과 배치계획, 평면계획, 실내기둥과 내부공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제1피테아눔의 인지학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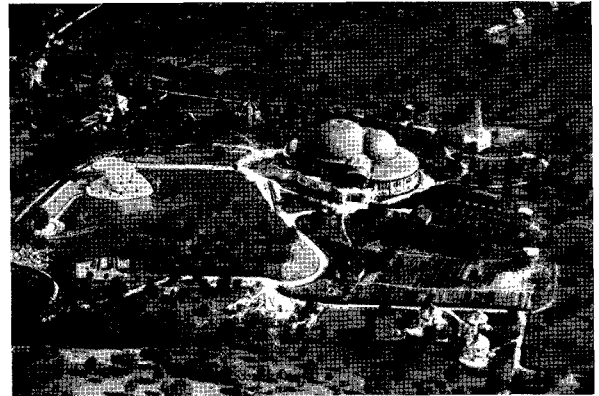


그림 6. 도르나흐의 제1피테아눔 전경. 동남쪽 상공에서 내려다 봄

1) 축(軸)과 배치계획

피테아눔의 배치계획의 주된 방향은 동서 방향의 주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는 형태이다. 정면 입구를 서쪽으로 향하게 한 것은 교회건축의 전통적 배치방법에 따른 것이다. 이는 슈타이너의 인지학이 종교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콘크리트 기단위에 목재로 지어진 본체는 커다란 돔으로 인해 동방교회와 닮은 모습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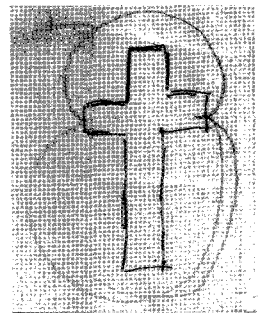


그림 7 제1피테아눔 평면 개념 스케치

그리고 본체에 맞물려 남북 방향으로 뻗어 나온 부속시설과 정면에 돌출한 전실에 의해 전체적으로 이 건물은 십자형의 평면형태의 변형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슈타이너의 초기 스케치를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그림7). 즉, 교회건축의 네이브(Nave)와 아일(Aisle)이 원형 공간과 굽은 회랑으로 변형되었고 남북 방향의 부속실은 트란셉(Transept)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쪽의 끝부분, 교회건축에서 앱스(apse)에 해당하는 곳에는 조각상을 배치하였다.

한편 주변건물들은 모두 공동체의 중심건물인 피테아눔과 연계되어 배치되었다. 본당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 하우스는 가장 가까이에 배치되어 지하로 스팀통로가 나 있다. 이 건물로부터 다른 건물들은 와선을 그리면서 피테아눔이 위치한 언덕 주위를 여유롭게 에워싸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이 건물들이 모두 피테아눔을 향하도록 배치함으로써 피테아눔이 도르나흐의 인지학 공동체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음을 각인시켜준다. 부속 건물들의 기능에 따른 배치를 보면 주로 주택과 기타 여러 용도의 건물들이 분리되어 있다. 즉, 동-서축을 기준으로 보일러실, 출판국, 유리공방, 오이리트메움처럼 공공기능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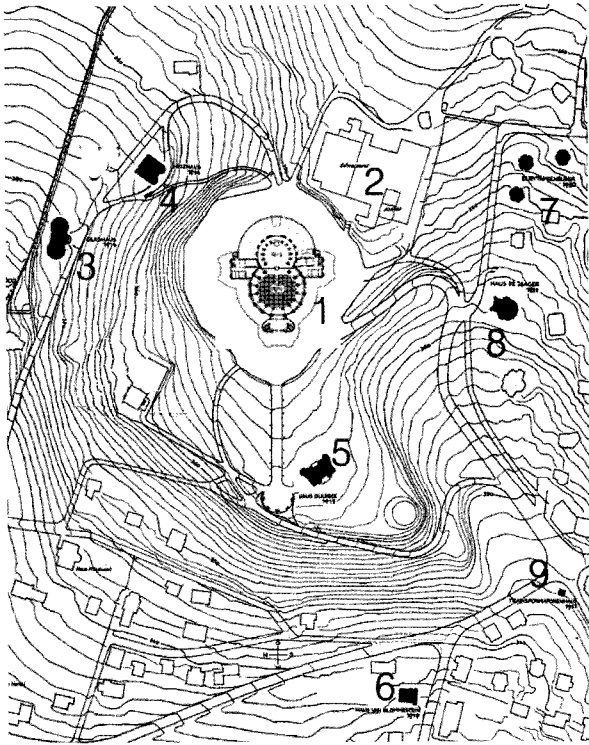


그림 8 제1피테아눔 site 평면

1. 제1피테아눔(1913-1920) 2. 가구제작소(1913) 3. 글라스 하우스(1914) 4. 난방기계실(1915) 5. 돌택 주택(1915-1916) 6. 브롬메슈타인주택(1919-1920) 7. 오이리트미 주택(1920-1921) 8. 야거 주택(1921-1922) 9. 변전기 건물(1921)

물은 북쪽에 위치하고, 돌택 주택을 비롯한 주택들은 언덕의 남쪽에 배치되었다. 이것은 주택의 향을 고려한 배치라고 판단된다.

피테아눔이 위치한 곳은 특별히 성스러운 의미를 지닌 장소는 아니다. 그러나 슈타이너는 이곳에 피테아눔을 건축함에 있어 과거 신성한 건축물(종교건축물)의 배치 방법을 따르고 성스러운 건물의 축성에서 드러나는 특징인 우주창생원리의 반복과 중심의 상징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이용해 피테아눔의 입지를 성화(聖化)시키고 있다. 그리고 주변의 건축물들은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속(俗)의 세계에서 벗어나 질서 잡힌 상태로 전이됨으로써 '우주화'된다. 더 나아가 이들의 형상은 중심에 자리 잡은 피테아눔의 형태어휘를 받아들임으로써 피테아눔이 행한 우주적 원리의 재현에 동참하고 있다는 의미가 더욱 강화된다.

전체적으로 피테아눔과 주변건물의 배치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각자의 정해진 위치를 점유하면서 인지학적 건축론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2) 평면계획

집회와 공연을 위한 건물인 제1피테아눔의 입구는 교회건축의 평면에서 보이듯이 서측에 두었다. 좌측(=서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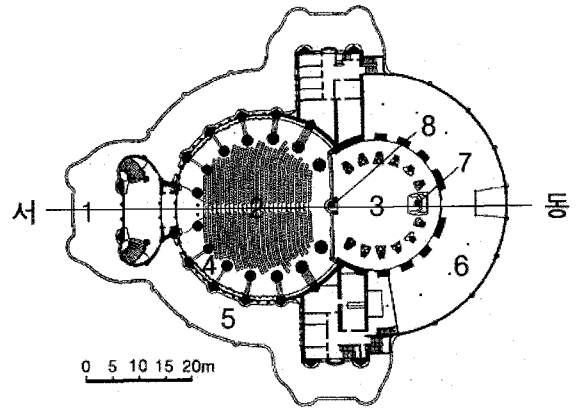


그림 9. 제1피테아눔 평면도

1. 정면 주출입구 2. 객석 3. 무대 4. 객석 회랑 5. 테라스 6. 무대 부속실 7. 조각상 8. 연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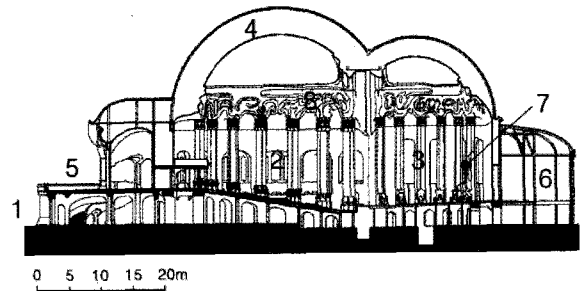


그림 10. 제1피테아눔 동-서 방향 단면도

1. 정면 주출입구 2. 객석 3. 무대 4. 두겹의 목재 돔 사이 공간 5. 테라스 6. 무대 부속실 7. 조각상 8. 아키텐트레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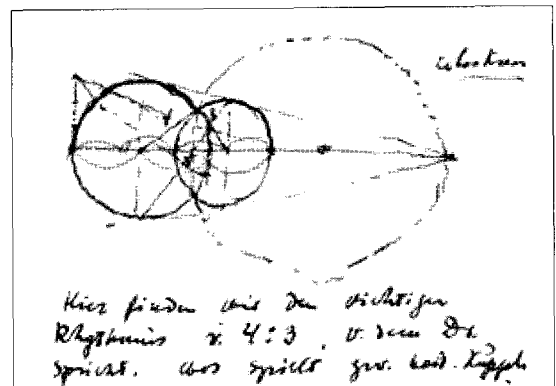


그림 11 제1피테아눔 평면의 기하학적 원리(슈타이너의 스케치)

의 큰 원은 객석부분이며, 우측의 작은 원은 무대공간이 된다. 객석 부분은 7쌍의 기둥이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무대 쪽에는 6쌍의 기둥이 역시 대칭을 이루며 배열

되었다.

평면 계획에 적용된 기하학적 원리는 1913년에 제작된 칼 슈미트 쿠르티우스(Karl Schmit-Curtius)가 정리한 도면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그림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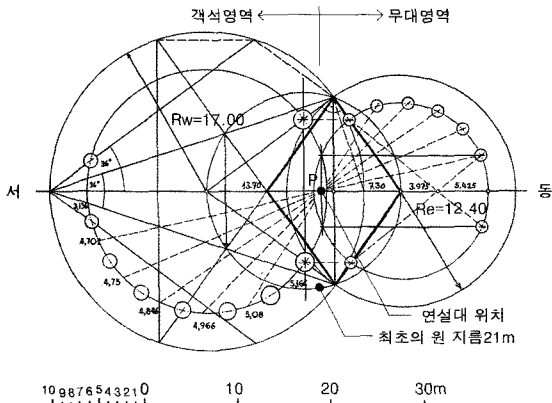


그림 12. 제1피테아눔 평면 다이어그램

평면 설계의 처음은 중앙에 있는 '최초의 원'의 지름을 21m로 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1m라는 치수는 슈타이너가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 솔로몬 신전의 크기를 해석하여 적용한 것이다.⁷⁾

슈타이너는 두개의 다른 크기의 원을 겹쳐서 한쪽에는 무대를, 다른 쪽에는 객석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공간은 두개의 동심원을 바탕으로 안쪽원의 선상에 기둥을 세우고 바깥 원의 선상에 벽을 세웠다.

평면의 기본 형태를 결정하는 이 두 쌍의 동심원은 앞서 정한 지름 21m의 최초의 원에서부터 유추하였다. 즉, 서쪽 객석부분의 외곽 원의 반지름은 17m이고 동쪽 무대부분의 외곽 원 반지름은 12.4m로 계획되었는데 이는 모두 최초 중앙의 원의 크기에 다음과 같이 황금비(黃金比, golden section)의 다양한 적용을 통해 얻어진 결과이다.

기둥위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큰 원의 반지름에 $2 / \sqrt{5}$ 를 곱한 값으로 정하였다. 서측 객석부분의 기둥 위치를 위한 작은 원 반지름(r_w)은 $r_w = R_w (2 / \sqrt{5}) = 12.978m$, 약 13m이고, 동측 무대부분 기둥위치를 위한 작은 원 반지름(r_e)은 $r_e = R_e (2 / \sqrt{5}) = 9.430m$ 가 된다.

즉, 제1피테아눔 평면의 기본적인 치수는 성경의 솔로몬 신전에서 그 기본을 구하고 고전시대의 비례인 황금

비를 적용하여 결정한 것이다.

황금비는 고대로부터 자연이나 미술품의 형태미를 결정하는 여러 비례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것은 이데아적인 수와 기하도형에 담겨있을 뿐 아니라 자연의 형상에서도 비례의 법칙을 통해 황금비는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황금비는 초월적인 이데아이며 영원불멸의 형상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황금비는 더욱 신비화 되어 신의 뜻에 의해서 수여된 비법이라는 뜻으로 신수비례법 (神授比例法, divina proportion)이라고 불렸다.

이렇듯 피테아눔의 평면은 엄격한 기하학의 체계 아래 계획되었다. 기하학은 그 공간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골격계에 작용하여 인간의 잠재의식에 내재된 우주적 교감을 일깨우는 방법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두개의 이중원이 겹쳐진 평면형태는 그대로 단면형상에도 적용되어 입체적으로 일관된 내부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3) 기둥설계

제1피테아눔의 내부공간은 원형으로 배치된 특징적인 기둥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객석부분의 일곱쌍의 기둥은 입구로부터 무대를 향해 가면서 바닥 경사에 따라 점점 더 높아지고 지름 또한 증가하고 있다. 기둥의 지름은 기둥 높이의 1/7에 해당하고 각각의 기둥에서 주두와 주각 부분도 전체 높이를 7등분하여 각각 1/7의 높이를 갖도록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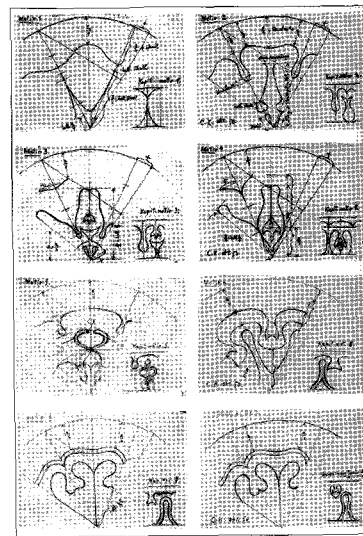


그림 13. 식물형태에 의한 7개의 주두 모티브 상세도. Carl Kemper에 의한

이 일곱 개의 기둥은 각기 다른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태양계의 일곱 행성(해,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또 주두에 조각된 문양들은 피테의 영향을 받은 변형론에 따른 것이다.

인지학 건축에서 조각가로 활약하였던 칼 켐퍼(Carl Kemper, 1881-1957)는 슈타이너가 식물의 변형으로부터

포착한 변형론적 모티브를 실제로 조각과 건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교한 드로잉으로 정리하였다. 그림13은 켐퍼가 식물 변형적 형태를 일곱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전형적인 모습의 그래픽으로 체도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1/4에 해당하는 부분만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들을 원형으로 연결하면 원형의 식물 그래픽이 완성된다. 각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는 평면적으로 그려진 식물 형상들을

7) "솔로몬왕이 야훼께 지어 바친 전은 그 길이가 육십 척, 나비가 이십 척, 높이가 삼십 척이었다. 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의 길이는 전 자체의 나비 그대로 이십 척이고 그 나비는 전의 길이에 잇대어 십 척 더 나왔다.....가장 낮은 층의 입구는 전의 오른쪽에 내었고 나선형 층계를 밟고 가운데층으로 올라가고 또 가운데층에서 삼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또 이십 척이 되는 전의 뒤쪽은.....그 내부를 밀실 곧 지성소로 지었고 이 밀실 앞쪽에 있는 본전은 길이가 사십 척인데 전의 안에 있는 송백나무에는 호리병과 여러 가지 꽃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국제가톨릭성서공회, 성서, 열왕기상 6장 2절-18절.

주두의 조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약간 변형해 놓은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다.



그림 14. 제1피테아눔 객석부분의 일곱 기둥 주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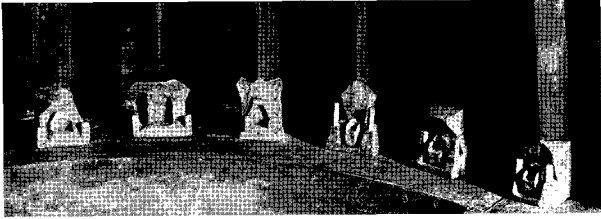


그림 15. 제1피테아눔 무대부분 여섯 기둥 주초

한편 무대부분의 6쌍의 기둥은 또 다른 방법으로 변형론과 우주론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황도 12궁을 상징하면서 주두와 주각에는 앞선 일곱 쌍의 기둥에서처럼 식물변형에 의한 형태와 우주를 암시하는 별의 인장을 조각하였다(그림15). 그리고 여기서는 각 기둥의 재료를 변화시키는 방법에 의해서도 변형론을 적용하고 있다. 모두 목재를 사용한 기둥들은 각각 2종류의 목재를 혼합하여 구축되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기둥의 순서로, 첫 번째 기둥은 자작나무와 단풍나무, 두 번째 기둥은 단풍나무와 느릅나무, 세 번째는 느릅나무와 떡갈나무, 네 번째는 떡갈나무와 빛나무, 다섯 번째는 빛나무와 물푸레나무, 여섯 번째는 물푸레나무와 서양산사나무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여러 가지 수법을 통해 슈타이너는 천체와 교감하는 지상의 생명체들에 대한 우주론적 결함을 표현하고자하는 인지학적 건축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4) 내부공간

단면에서 서측의 객석부분은 큐폴라의 내접원이 객석 바닥에 접하도록 설계되었다 슈타이너는 종교건축이 교회보다는 사원이기를 원했으며 따라서 인지학 성전인 제1피테아눔을 로마판테온과 같은 만신전의 형식으로 계획하였다. 그러한 바랍은 벽면과 천장 등의 의장요소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단면을 보면 객석부분의 원은 극장의 바닥과 지면에 닿아 있다. 그런데 무대부분의 구성을 보면 작은 큐폴라의 내접원이 무대 바닥에서 들어 올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16)

무대 공간은 살짝 들어 올려놓은 기하학을 적용하여 정신세계의 영역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객석공간의 평면형식인 원형 회랑을 무대공간에서도 반복함으로써 수직적인 위계의 정신, 영혼, 신체가 아니라 서로 연동하는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객석의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공간은 빛과 색채와 조각이 어우러져 점차 정신적인, 초감각적인 세계를 인식하게 하고, 무대공간에서 공연되는 오이리트미와 신비극공연은

보다 생동하는 방식으로 정신세계를 표현하게 된다.

제1피테아눔의 내부공간은 또한 서로 다른 크기의 원형공간이 상호 교차하고 무대와 객석이 서로를 향해 기울어져 있는 형식을 통해 내부공간은 역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무대로 향해 변화하면서 점점 커지는 기둥은 입구에 들어선 사람에게 강한 운동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두개의 원형공간에서 객석이 되는 큰 공간은 물질적인 것을 상징하며, 작은 돔 공간은 정신적인, 초감각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공간이 된다. 그리고 이 두 공간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인 연설대는 물질계와 정신계의 특징을 포괄하며 중재하는 연설자, 즉 자아를 지닌 인간이 위치하는 장소임을 웅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색으로 제작된 색 유리창은 그 통과하는 빛으로 인해 색채를 한정하는 형태를 제거한 채 무한한 색채의 바다로 빠져들게 한다. 또 거기에 새겨진 그림과 천정화를 통해서는 먼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내면의 명상적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 구성은 슈타이너가 말하는 인간의 12감각에⁸⁾ 작용하도록 배려된 것이다. 인간을 인체-혼-정신의 합일체로 본 슈타이너는 피테아눔을 통해 건축공간이 인간에게 공감각적 체험을 줄 수 있기를 원했다. 이를 통해 내면에 잠자고 있는 감각들을 자극하고 초감각적 세계를

8) 슈타이너는 인간에게 12개의 감각이 있다고 주장한다. 12감각은 청각, 시각, 미각, 후각, 촉각, 열 감각, 균형감각, 운동감각, 생명감각, 언어감각, 사상감각, 자아감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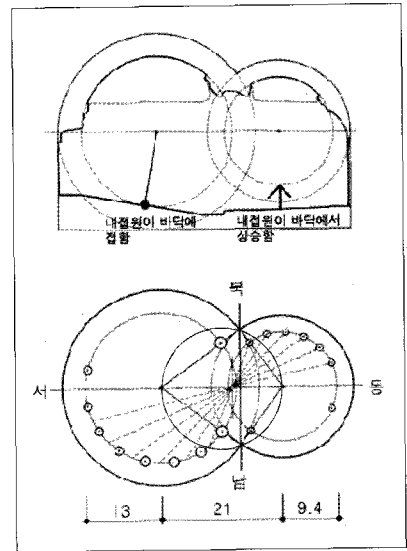


그림 16. 제1피테아눔 평면 및 단면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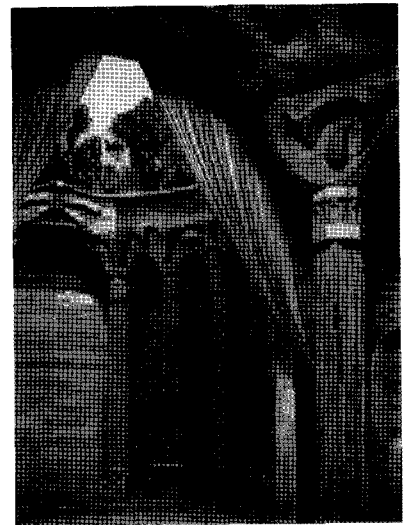


그림 17. 제1피테아눔 내부공간 무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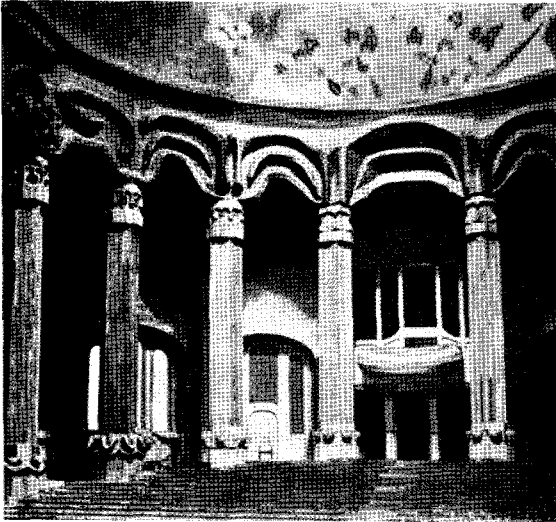


그림 18. 제1괴테아눔 내부공간 객석부분, 입구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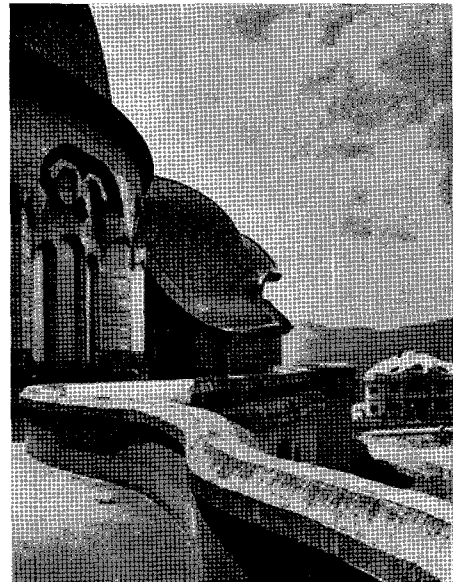


그림 19. 제1괴테아눔 외부공간 측면테라스

인지하지 못하는, 닫혀버린 영혼을 일깨우려는 의도였다. 말하자면 슈타이너에게 중요했던 것은 '단순히 직관형식이 되어버린 공간'을 어떻게 하면 정신화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다. 이는 근대에 이르러 잃어버린 공간의 의미를 되찾고 이를 직접적인 체험공간으로 만들어보려는 시도였던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대표작인 제1괴테아눔의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슈타이너는 인지학 건축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이를 제1괴테아눔 건축에 실현시켰다. 인지학적 건축론은 인간의 정신세계와 교감하는 우주론, 자연의 변화에 따르는 변형론, 인체에 근원적으로 각인된 인식인 기하학의 적용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2. 슈타이너는 제1괴테아눔의 각 요소에 인지학적 건축론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였다. 건물의 배치와 축의 설정은 교회건축의 형식을 차용하여 기하학과 우주론을 적용하였다. 평면형식에서는 기하학의 적극적인 사용이 강조되었다. 기둥은 우주론적 상징과 함께 식물형상을 조각하였으며 점진적인 크기의 변화를 통해 변형론을 적용하였다.
3. 슈타이너는 제1괴테아눔의 건축공간을 통해 방문자의 의식과 무의식에 작용하는 공감각적 체험을 통해 정신적인 영역에 구체적인 감흥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이것은 자아의식을 고양시키고 고차원적인 세계와의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한다는 의미이다.
향후, 보다 완전하게 제1괴테아눔의 인지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내부공간에 적용된 의장요소와 수학적 비례의 인지학적 의미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Biesantz, Hagen-Klingborg, Arne, The Goetheanum - Rudolf Steiner's architectural impulse, Rudolf Steiner Press, London, 1979
2. Kemper, Carl, Der Bau, Stuttgart, Verlag Freies Geistesleben, 1984.
3. Peht, Wolfgang, 『표현주의 건축』, 박민철 역, 도서출판 국제, 서울, 1991
4. Raab, Rex, Klingborg, Arne, Fant, Åke, Eloquent Concrete, London, Rudolf Steiner Press, 1979.
5. Roggenkamp, Walther, Das Goetheanum als Gesamtkunstwerk, Dornach, Verlag am Goetheanum, 1986.
6. Steiner, Rudolf, Architecture as a Synthesis of the Arts, Collis, Johanna trans. Rudolf Steiner Press, London, 1999
7. _____, Art as Spiritual Activity, Howard, Michal ed. Anthroposophic Press, New York, 1998
8. _____, Bilder Okkultes Siegel und Säulen, Rudolf Steiner Verlag, Dornach, 1993
9. _____, Occult Signs & Symbols, Anthroposophic Press, 1972
10. _____, Theosophy, New York, Anthroposophic Press, New York, 1971
11. _____, Ways to a New Style in Architecture, Anthroposophical Publishing Company, London, 1927
12. _____, 『교육의 기초로서의 일반 인간학』, 김

박윤준

성숙 역, 물병자리, 서울, 2002.

13. _____, 『초감각적 세계인식』, 양역관 역, 물병 자리, 서울, 1999

14. Zimmer, Erich, Rudolf Steiner Als Architekt von Wohn-und Zweckbauten, Stuttgart, Verlag Freies Geistesleben, 1985.

15. 박윤준, 「루돌프 슈타이너의 초기 건축에 나타난 인지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0권 10호, 2004

16. 정윤경,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론 연구」, 박사 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1998